東大新聞

發行人 徐燉珏
編輯人 韓相範
主幹 宋赫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㉗8131~9
本社直通㉗8577

每週火曜日發行

東國學院 理事會 選任

19日 첫 召集

文敎部는 11일 學校法人 東國學院 理事陣의 승인을 취소하고 官選理事 13명을 선임했다。 이번 官選理事의 選任은 私立學校法 20條와 25條에 따른 것이다。

새로 選任된 관선이사들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法人 정상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첫 理事會는 19일 오후3시에 열린다。

새로 선임된 관선이사는 다음과같다。

◇官選理事

▲李桓儀(MBC 社長) ▲孫承德(국회의원) ▲柳根昌(원호처장) ▲徐明源(서울大 부총장) ▲金東旭(국회의원) ▲河點生(서울시 교육감) ▲具泰會(우임소장관) ▲元瑢洙(코리아헤럴드理事長) ▲柳建浩(조선일보 전무) ▲金亨根(변호사) ▲金甲洙(변호사) ▲金壬龍(문화공보부기획관리실장) ▲蔡汶植(국회의원)

教練시험 26日부터 22日엔 補充敎育도

학군단(團長=裵大起大領)에서는 74학년도 제1학기말 試驗을 오는 26일부터 各學年別로 실시한다。

試驗場所는 J건물과 中講堂이며 각학년별 시험일자, 시간은 다음과같다。

◇1학년=26일(水) 15시~17시 ◇2학년=27일(木) 〃 ◇3학년=28일(金) 〃

한편 학군단에서는 1학기말 보충교육을 오는 22일(土)에 실시한다。

1학기말 보충교육은 학적변동대상자의 구제를 위해 실시되는데 학군단에서는 1시간이상 결석자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各學年別 보충교육시간은 1、2학년은 13시부터 1백40분간을 1교시로하여 3교시에 걸쳐서, 3학년은 15시부터 2교시에 걸쳐 實施할 예정이다。

또한 74년도 1학기 개강후 實施하지 않은 第一週 敎練敎育에 대한 보충교육을 1학년은 26、28일, 2학년은 24、25일, 3학년은 7월2、3양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3年生도 現地로

13日、農村實習 결단식

農林大 3학년생들의 농촌실습결단식이 지난 13일 총장실에서 있었다。

오전10시부터 시작된 결단식은 徐총장및 권희백農大學長과 각과 주임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학생대표 김진택(農經·3)군의 선서가 있은후 3학년 대원 총75명은 경기도 파주군등 현지로 떠났다。

農大 4학년 대원은 지난 3일 결단식을 갖고 現地留中에 있다。

「敎養學部 프로젝트 74」

7月22日부터 內外雪岳서

제2회 「교양학부 프로젝트74」가 7월22일부터 28일까지 내외 설악산과 낙산 본교 별장에서 실시된다。

「프로젝트74」는 교양학부생을 대상으로 화합정신을 함양시켜 새로운세대의 지도자상을 정립, 새화랑운동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는 「프로젝트74」의 참가자는 매주 일요일 서울본교에서 실시한 예비과정 참가학생중에서 선발하는데 代議員을 우선적으로 하고있다。

「깃들어는 코끼리」의 「캐치·플레이즌」를 내세우고 있는 「프로젝트」는 약 70~80명의 학생을 참여시킬 계획 인데 참가비는 3천원, 나머지 경비는 교양학부 측에서 부담한다。

「東國」小說合評會

東國文學會서

東國文學會(會長=尹錫成·國文·3)는 會員3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지난14일 오후4시30분부터 A106강의실에서 小說合評會를 가졌다。

同會는 지난5日에 詩合評會를 가진바 있으며 이번 小說合評會의 作品은 「東國文藝」(國文科)군의 「祭亡妹歌」와 丁琛璨(國文科)군의 「回路」등두편이였다。

「經營史學의 問題點」

經營「이데올로기」重要視경향

許衛

<商大經營科敎授·經博>

경영학연구 제2집(1972년12월韓國經營學會發行)「경영학교육에 관한反省」에서 調査 발표된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과목은 거의 設講치 않고 있거나 經濟史로 代替하고있다」라고되어 있다。

經營史는 첫째로 設講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경시되서는 안될 地位에있으며, 둘째 經濟史로 대체될수 있는性格의 學問도 아니다。따라서, 國內에서는 美國이나 獨逸이나 日本등과는 달라서 아직껏 經營史에 대하여 보다 高次的인 問題는 固辭하더라도 그 지위나 性格과 같은 根本的인 問題에 대한 이해마저도 부족한 것이 現實情이라고 하겠다。

<1>

<2>

經營學은 20세기의 産物로서 이미 高度資本主義段階에 이르러 成立된 日淺한 社會科學으로서 主로 近代化한 資本主義경영을 그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모든 內外學者들에 의하여 승인되고 있다。 對象이 그와같이 역사적으로나 社會的으로 限定化하고 있는 경영학에 있어서는 경영 자체의역사적인 生成 발전및 變容의 過程에대한 정리가輕視되기 쉬운것은 事實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고태도를 조금만 深重히 한다면 이미 근대화가 成就된 存在라고 할지라도 經營學이 그 主題 연구대상으로하는 資本主義經營그 自體도 實은 역사적인 존재임을 알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식이 여기에만 이른다해도 종래에는 대상을 단순한 여건으로서만 생각하고 그 내용을 고정적인 존재로서 파악하고 靜態的인 자세에서 분석하던 경영학적 사고내에 動態的 發展的 고찰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을것이다。이리하여 經營史硏究의 당시는 發展 및 變容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經營史의 학문적 지위도 높아진다。즉 독립자본은 장기합리화계획을 무체화하기 위하여서는 一國의 資本主義 高度成長政策이나 또는 보다 구체화한 산업별 지역별계획등에 의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같이 불확실하고 위험성을 내포한 장래를 관리하고 통제코자하는 독점기업은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資本主義企業으로서는 모순된바도 없지는 않지만 生産의 社會化나 巨大化가 獨占에 장하게 요구된다。따라서 獨占企業은 성립 그러한 計劃이 아무리위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라서 장기화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을수가 없으므로 장래를 향한 企業의 長期的體制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업의 전체구조를 분명히 해야 하게되며 따라서 현재 經營史 연구의 필요성은 增大되고 있다。장기화계획에 의한 경영관리기법이 統合하고 本格化함에 이르러서는 美國으로부터 직수입한 기술을 무비판적으로 섭취한 것으로는 우리의 기업적 현실과는 乖離되며 또한 그것은 확대되지 않을수가 없을 것이다。따라서 現代의 獨占資本은 「長期合理化計劃의 設定」 「經營管理技法의 統合化」등의 새로운 합리화체제의 확립의 一環으로서 경영사 연구에의 期待는 또한 增大되고 있다。

그리고 경영사연구는 最近의 經營이데올로기의 강화와 結合되어 展開되고 있음도 동한시할수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와의 관계나 소비자와의 관계는 물론 특히 노동자계급과의 관계를 무시하고서는 기업의 유지강화는 期待할수가 없다。합리화의 진전에따라 이들 집단이나 계급과의 기본적 모순이나 내부적 모순이 심화하면 할수록 그를 조절,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이 오무원도 물론이다。이러한 정책중에서 가장 직접적이며, 비용을 요하지 않는 이념으로서의 경영 이데오르기가 점차 중요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체질개선」論, 경영의 「민주화」論, 勞資협조에의한 「기업번영」論으로서 표면화하고 또한 그것은 「풍요한 사회」論이나 「복지국가」론과 결부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經營者사회」론에서와같이 지배자라는식의 「비지네스·이데오르기」라는것이 동장되고 있다。그리고 이데오르기는 기업내에서의 노동자를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참가시킴으로서 기업체와의 일체감을 높이는 방식의 채용에의하여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비지네스 이데오르기」기업의 내외에서 침전되어 기업의 합리화를 보강하고 추진시키는 힘이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 사상을 가장 체계적인 형태로서 전달하는 매체기능을 하는것이 또한 經營史연구 이다。

<3>

경영사를 경제사로 대체한다는 것은 경영사를 경영학의 한분야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社會經濟史學의 일익이라고 하는 문제가 되지만 경영사학은 경영학의 기본적고 찰판점인 경영, 특히 경영자의 주체적인 의사활동을 歷史的, 변천에따라 정리하는 것으로 경영 사학은 경영학의 한분야로서 정착 되어야 한다。더우기 역사적 존재라는 것은 이미형성된 거적인 事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도 뜻함으로서 경영학은 경영사의 연구를 통하여 경영 그 자체의 역사적 형성에 입각한 발전의 논리를 전개할수가 있으므로 비로소 경영학은 역사적 사회과학으로서의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경영사의 연구는 장래의 발전을 내포하는 의미에서의 현재의 시점에 입각한 경영방침을 수립 할수 있어서의 유한한 자료를 제공 할수가 있으므로 경영학은 실천적 이론과학으로서 특징을 경영사학과의 관련에서 발견할수가 있다。경영사학은 경영학의 연구대상인 경영의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한다는 것이 그 근본적인 성격이므로 경영사 연구에의 기여는 경영학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는것은 경영사의 지위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연유하는 근본적인 문제로서 이는 경영사 에 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경영학에 대한 문제임과도 하다。

「曹溪宗學」세미나開催

22일, 曹溪宗學研究所

本校 曹溪宗學연구소(所長=李鍾益교수)는 오는22일 오후1시 본관 교수실에서 「韓國佛敎의 傳統宗國으로서 曹溪宗의 역사적省察」을 주제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宗國成立의 3대根幹인 宗祖、宗旨、宗統에대해 학계에 異見이 있어왔는데 이번 세미나는 이의 정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部로 나뉘어 進行되는 이번 세미나의 제1부는 金雲學(숭가학과) 박사의진행으로 高亨坤박사를 비롯, 4명의 斯界권위들의 주제발표가 있다。

제2부는 金知見(불교학과) 박사 사회로 高僧大德과學界및 言論계인사가 참석, 討論을 갖는다。

主題發表者와 論文題目은 다음과 같다。

▲曹溪宗의 傳統思想=高亨坤(학술원회원·前전북대총장) 박사▲曹溪宗成立에 있어서의 역사적 성격=金煐泰(佛敎大) 교수▲五敎·兩宗의 역사적 고찰=李在烈(불교학자) 씨▲曹溪宗旨·宗統의 과제=李鍾益(宗學연구소장) 교수。

主題 「曹溪宗의 史的省察」

宗祖·宗統등 論議豫想

山岳人의 安全祈願

東國山岳祭 百50餘名 參加

제6회 東國山岳祭가 東國山岳會주최로 지난 16일(日)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天寶山 회암사에서 學生및 敎職員 1백50여명이 參加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박동기 교양학부 敎學課主任의 사회로 12시정각에 시작된 山祭는 三歸儀禮、山岳會略史報告、徐總長인사분향、四弘誓願의 순서로시종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山岳人간의 우의와 東國人의 安全山行을 기원하는 이 산악제에서 徐總長은 「山에 대한 겸허한 態度가 무사고와 安全의 根本」이라고 강조하고 이날 모인 1백50여 참가자들에게 安全山行을 당부했다。

이날 山岳祭에는 敎養學部生 50여명이 고토제트74 예비과정으로 참가, 예년에는 오는 7월7일부터 東海岸 경북지구일원의 佛跡조사를 실시한다。

비문탁본등 다채로운 조사하게될 이번 佛跡조사에 학생참가희망자는 참가비 1만원을 내면된다。

▲조사지 영주 부석사→한절 마애불→가흥리 마애불→봉화축서사→예천 용문사→문경봉암사·금용사→안동봉정사→의성 고운사→경주98호고분 발굴현장。

防衛誠金 KBS에 寄託

行政大學院學生會

行政大學院學生會(회장=尹運相)는 지난11日 지난 본관 세미나 A실에서 防衛誠金 모금다과회를 갖고 설금6만7천백원을 모아 KBS방송국에 기탁했다。

신충순院長및 정윤무교무과장등이 참석한 이날 다과회는 성황리에 열려 學生처원진흥회(회장 대학원진흥회)의 1만원을 위시 재학생다수의 성금이 답지했다。

會長정현석君

全國PTP서選出

明知大 PTP 지난12일 열린 제9회 全國PTP학생연합회 본교PTP회장 정기총회에서 정현석(연영과3년)군이 제2代 연합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外大 高大 梨大등 11個大學 PTP 회장단이 참가, 작년도 결산및 신충순院長및 정윤무교무과장등이 참석한 이날 합회장을 경과보고에서 선출하였다。

聯合奉仕團발단

本校生 43名참가

全國大學生 夏季 연합봉사단 발단식이 18일 오전 10시 成大에서 열렸다。

본교에서는 나언표學生長을 비롯한 최덕화(農經·4)군등 43명이참석했다。

이날 발단식이 지난 8일 成大에서 열려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과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다。

농어촌연구부를 본교에서는 8개 써클에서 참가할 예정이다。

써클對抗 배구大會 개최

22日, KUSA-D主催

KUSAI D(會長=김길재·農經·3)는 오는 22日 공대운동장에서 제1회 총장기 쟁탈 써클대항배구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학구적인 대학토론을 조성하고 써클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KUSA가마련한것이다。

KUSA가 마련한 시상은 우승、준우승、웅원상、입장상으로 나뉘고、우승한 팀에 총장기및 우승컵、준우승이하에도 각각 상장및 부상이 주어지며 상장이 주어진다。 참가비는 2천5백원。

「農硏」定總

任員선출 會則개정

제19회 慶漁村硏究部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학생회관 3층 제1會議室에서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가운데 열렸는데 임원선출및 일부회칙개정이 있었다。

이어 언표學生課長의 축사에 이어 임원선출에서는 회장에 朴祖大군(農經科·3年)이 피선되었고, 次長에는 李錫喆(農藝科·2年)군이 각각 피선되었다。

忠北大綜合우승

외솔배體育大會

전국국어운동학생연합회주최 제3회 외솔배생탈체육대회가 지난16日 本校 大運場에서 있었다。

본교 국어운동학생회(회장=강웅구·교교·3)를비롯, 서울大、延大、外大、상명女사대、충북大、청주大등이 참석한 배구、농구등 세종목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男子部및 女子部종합우승은 忠北大가 男子部준우승은 延世大가 女子部준우승은 서울大가 각각 차지했다。

朝末考査 日前에

圖書館은 盛市

오는 22일 교양학부생의 영어·영작 시험을 필두로 74학년도 학기말시험이 시작되어 시험준비와 방학채비등으로 부산하게되었다。

오는 24일로 입박한 기말고사는 7월6일까지 2주간에 걸쳐 치루게 되는데 시험 시간표가 발표된 17일부터 도서관에는 좌석이 꽉들어차 盛夏의 열기를 더하고있다。

시험 첫週에는 3、4학년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섭미·스클」이 열려 영어·영작 학점 미취득자(60點이하)들이 수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험을 치른다는 체육·교련 포함대상이된 선관위원명단은 다음과같다。

◇선거관리위원장=李敬在(電子工·4) ◇선거관리위원=박경준(佛·2) ▲문리대=이을주(化·3) 장호필(英文·3) ▲법정대=김영환(정외·4) 채기명(행정·2) ▲경상대=이홍규(무역·2) 김철수(경제·2) ▲농림대=유재흐(농경·2) 이철규(농학·2) ▲공과대=진연구(건축·2) 이경재(전자공·4) ▲사범대=김진웅(국교·2) 고영기(교교·2) ▲女學生會=허정희(교교·3) 문미옥(정외·3) ▲교양학부=박봉기(경행·1) 진홍기(체교·1)

選管委員표창

17名오는21日

74學年度 總學生會 선거관리위원회는 주관한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공로 표창이 오는 21일 11時 총장실에서 있을예정이다。

이날 표창을 받게될 李敬在(電子工·4) 군등 17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은 지난 5월23일에 구성되어 30일에 있었던 單代會長선거와 6월1일에 있었던 總學生會長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표창을 받게된 것이다。

표창대상이된 선관위원명단은 다음과같다。

◇선거관리위원장=李敬在(電子工·4) ◇선거관리위원=박경준(佛·2) ▲문리대=이을주(化·3) 장호필(英文·3) ▲법정대=김영환(정외·4) 채기명(행정·2) ▲경상대=이홍규(무역·2) 김철수(경제·2) ▲농림대=유재흐(농경·2) 이철규(농학·2) ▲공과대=진연구(건축·2) 이경재(전자공·4) ▲사범대=김진웅(국교·2) 고영기(교교·2) ▲女學生會=허정희(교교·3) 문미옥(정외·3) ▲교양학부=박봉기(경행·1) 진홍기(체교·1)

「敎養學部 프로젝트 74」

7月22日부터 內外雪岳서

제2회 「교양학부 프로젝트74」가 7월22일부터 28일까지 내외 설악산과 낙산 본교 별장에서 실시된다。

「프로젝트74」는 교양학부생을 대상으로 화합정신을 함양시켜 새로운세대의 지도자상을 정립, 새화랑운동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는 「프로젝트74」의 참가자는 매주 일요일 서울본교에서 실시한 예비과정 참가학생중에서 선발하는데 代議員을 우선적으로 하고있다。

「깃들어는 코끼리」의 「캐치·플레이즌」를 내세우고 있는 「프로젝트」는 약 70~80명의 학생을 참여시킬 계획 인데 참가비는 3천원, 나머지 경비는 교양학부 측에서 부담한다。

ROTC 연꽃祭

1·2년차生 體育大會도

ROTC에서는 지난 15일 제13회 연꽃제를 가졌다。

裵大起團長을 비롯, 1、2년차ROTC生全員이 참석한 이번연꽃제에서는 격구·배구등의 체육대회를 가졌으며 체육대회가 끝난뒤 학생회관에서 카니발을 갖기도했다。

1년차ROTC、2년차ROTC등 두팀으로편성되어 進行된 체육대회에서 격구경기는 1년차가 배구경기는 2년차ROTC생이 각각 우승했다。

연꽃제「카니발」에서 ROTC학생들이「파트너」와 담소하고있다。

「東國」小說合評會

東國文學會서

東國文學會(會長=尹錫成·國文·3)는 會員3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지난14일 오후4시30분부터 A106강의실에서 小說合評會를 가졌다。

同會는 지난5日에 詩合評會를 가진바 있으며 이번 小說合評會의 作品은 「東國文藝」(國文科)군의 「祭亡妹歌」와 丁琛璨(國文科)군의 「回路」등두편이였다。

수리수

惡夢

품이라면 깨면 다가도 별안간에 고충전 겠지만 깨서 무엇이 더 할것인지는 깨어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이기에 깨는데만 희망을 걸수도 없다。 녀무나도 분하고 원통하고서 차라리 꿈이었으면 하고 깨련마는 그래도 꿈이란 깨어있는 세계에서는 그렇게도 不條理하게 분하고도 원통하고서 단꿈은 꾸고 싶다。惡夢도 예약도 없이 있는것은 무엇이던 마치 無에서 有를 창조하듯이 없는 것이 다가도 깨면 그만이 되는 꿈처럼 사라지는 것이 뉘라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날도 꿈처럼 사라져 버렸다。 여름이다。 고층전 이루었거나 말거나 시간을 까마아득하게 파거로 파거로 흘러만 간다。 그 저 죽다가 살아 나면서 깨지는 꿈처럼 死에서生으로 연속되는 꿈의 창 조처럼 밤에서 여름에로 이어진다。 그렇게 情들면 서 어려서 시골길을 걸어 보아도 시간은 순간 밟아보아도 非情한 봄 잠지도 않은 봄이었다。 이제 이 봄은 영영 가버렸다。 없어지는 봄에서 꿈처럼 靑山白雲처럼 여름이 솟는다。 푸른잎사이에 붉은꽃이 핀다。 돌이 되는 꿈처럼 綠紫에서 빨강、노랑、흰색이 튀어 나온다。 다가오는 여름이 단꿈인가지 나간 봄이 惡夢인가 惡夢이면 깨고 싶고 단꿈이면 꾸고싶어 깨고 또 깨고 또 꾸고 또 꾸면서 꿈을 깨므로 잊고 죽음을 삶으로 이어 가면서 阿鼻耶識은 瀑流처럼 흐른다。(世親菩薩造 唯識 30頌—참조)

<元 義 範>

今週一言

不親卑漏法,
不與放逸會.
不種邪見根,
不世於長惡.

친하고 더러운법 배우지말라. 방일로 시간을보내지말라. 그릇된 소견을 가지지말라. 세상의악을 도우지 말라.

<法句經>

名敎授 名講義

本學院은 政府代行 海外 여행자에 對한 日本語 語學能力 檢定시험 위촉 公認 기관임

ILI 학원

—外國語 專門—

英語會話 哲學獨語特講
日本語
中國語
西班牙語
獨·佛語

◎독일어와 철학을 함께 공부하실분(독일어 기초문법을 배우신분은 누구나 청강하실수 있음)
◎敎材 : K. Jasper 著 「Philosophie」(철학)
◎강사 : 崔昌成 교수

DIGEST·TIME
◎英文독해력과 어휘 整理를 爲한 大學生 필수 과정班
◎시간 : 새벽반·낮반·저녁반
위치 : 종로2가 네거리 삼화고속 건너편
전화 ㉕8115·8116 ㉕8117
개강 7월 1일

개강 7月1日
새벽·오전
오후·저녁
수시접수

英語
留學班
就職班
考試班
基礎整理班
高級完成班
會話班
(English 900)

日語
初級班
中級班
高級班
다이제스트

獨語
독문법완성
독문해석

문의는㉒9226㉔2442
종로2가태극당옆삼화고속뒤
시사영어학원

海軍行政兵·高麗打字學院 입학생 모집
(계림극장건너편) ㉕5252·5020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20~4
海軍行政兵指定學院·高麗打字學院

74년도 7월1일(月) 入隊 희망자모집 자격=만17세~23세 건강한남자 소정교육후 행정병으로임대 복무연한은 일반병과같음

高麗經理珠算學院
①會計士 準備班 ②稅務士 準備班 ③各級부기 검정반 ④3급 부기검정반 ⑤경리실무반 ⑥주산반

高麗打字秘書學院
①교양반 ③주직반 ③비서반

高麗書藝文化學院
①펜글씨반 ②붓글씨반 ③차트반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學生 募集
男女 夜間

一 募集學科
①行政學科…組織管理 人事行政·財務行政·計劃行政·都市行政·開發行政 各專攻
②安保行政學科…公安行政·國防行政·防衛産業·安全管理 各專改
二 課程
碩士課程 (行政學碩士·敎育碩士)
硏究課程
三 願書交付 및 接受
一九七四年六月十日~七月五日
四 銓衡日時 및 場所
一九七四年七月六日(土) 午後二時 本大
五 銓衡方法
書類銓衡 및 面接
六 特典
①公務員 全員(敎師·軍警 포함)에 奬學金 支給
②其外의 各種 奬學金 特典이 있음
③敎育 公務員으로서 碩士學位 取得者는 昇進에 特典이 있음
※기타 자세한 것은 本 行政大學院 敎務課로 問議하십시오。

東國大學校
㉗八一三—㉗八一四一~五

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學生 募集
男女 夜間
전화 ㉗8140

一 募集內容
財務·稅務會計專攻·市場管理專攻·人事·勞使管理專攻·保險管理專攻·EDPS專攻
經營法律專攻·貿易專攻 以上若干名
二 入學資格
四年制 大學卒業者 및 一九七四年八월卒業豫定者
三 願書交付 및 接受期間
一九七四年六月十日~一九七四年七月十二日(金)
四 銓衡日時 및 場所
一九七四年七月十三日(土) 午後二時 本 經營大學院
五 銓衡方法
專攻·英語및 面接
六 特典
①本 大學院은 商工部 長官이 指定한 貿易專門敎育機關임
②貿易專攻 一年修了者에게는 所定의 審査를 거쳐 貿易士資格證을 授與함
③本 大學院 EDPS 課程은 公務員 任用施行令 第二三條二項 및 公務員 昇進을 爲한 評定規程 第十條의規定에의거하여 總務處長官이 認定한 指定專門敎育 機關임
④各種 奬學 特惠있음
※其他 詳細한 것은 本 經營大學院 敎務課에 問議하십시오。

東國大學校
㉗八一三一 ㉗八一四一~五

大學 施設과 學生福祉

<社說>

大學의 使命이 深奧한 學術의 敎授와 그 應用을 通한 國家의 發展및 人類文化에 寄與하는 人材의 養成을 目的으로한다는 現行의 우리敎育法이 實施되고 있는限 우리의 施設도 또 大學에 賦與된 使命을 遂行하는데 疎漏한 점이 있어서 아니된다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大學敎育이 本軌道에 올랐다고 볼수있는 서울收復이후부터 現在까지 겨우 四半世紀間의 짧은 기간에 이룩한 各大學의 施設은 擴充은 그 어느 分野보다 刮目되는 驚異的이라는 見解에는 누구도 否定할수 없을 것이다。물론 數百萬坪의 校地와 一個都市와 比肩하는 外國의 有數大學에 比하면 그 建設에 所要된 數世紀의 時間的懸隔과 國土、國力등의 차를 大學의 施設面에서도 意識하지 않을수 없으나 우리의 國民所得과 低所得國家가 겪어야하는 敎育投資面의 極甚한 壓迫이라는 惡條件을 통고 短期間에 우리나라大學이 이룩한 거의 奇蹟에 가까운 施設確保는 賦與된 大學의 使命을 充分히 認識한 大學當局의 誠意와 學父母및社會各界의 뜨거운 後援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結晶이었다。

이것은 우리大學의 施設擴張의 자취를 더듬어 보아도 國內의 各大學과 별반 다를것은 없다。校地2千餘坪에 煉瓦2層 270坪의 惠化洞舊校舍와 肇洞 南山기슭에 散在하는 數棟의 木造建物만으로서 解放이후 開講한 우리大學이 이제그 外觀에 있어서는 國內의 여러大學에 어깨를 겨누어 그리 遜色없는 施設을 갖추게 되기까지는 言語에 絶하는 難關을 克服하고 누리게된 成果인 것을 알아야 하겠다。즉土地改革令으로 東國學院의 基本財産이 모두 地價證券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다시 6·25動亂後의 通貨膨脹및 貨幣改革에 禍입어 거의 有名無實한 財産이 되고 말았던 그 惡條件밑에서 이와같은 施設을 이룩한것은 經營當局의 뛰날침과 大學當局의 피나는 努力이 主導的인 役割을 하였던것은 말할것도없다。

그러나 적어도 大部分 大學의 境遇에 있어서는 期成會의 醵出金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過去에 못지않은 比重을 차지하게 될것임은 쉽게 豫想할수 있다。

開發途上國家라는 緊迫한 經濟與件에서 大學修學에 있어 學資金이 차지하는 比率은 매우 높은 것이며 우리나라大學을 一時「牛骨塔」이라는 深刻한 表現으로 比喩하였던 事例가지 있었던 것이었다。것도 이러한 데서 緣由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國民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교육비 지출은 現下의 우리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大學의 독적과 사명에 찬응하고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 지리라는 대학당국에 대한 신뢰감에서 이루어지는 형위라고 보아야 하겠다。

따라서 大學당국은 그 시설의 확장에 있어서는 항상 이러한 교육상의 기대를 의식하여야 하며 여편 자의나 또는 即興的인 發想으로 귀중한 교육비가 학생의 효율을 있는 교육과 복지시설에 직결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됨수는 없다。

최근의 우리大學시설이 학생회관 을 비롯하여 目下 그 기초공사의 착수를 보게된 실내체육관등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있을뿐 아니라 거대한 도서관의 書庫는 도서관중심의 자율적학습을 원활히하려는 본대학의 교육자세의 반영이다。아직 진열시설의 미비로 일반에게 전시못하는 유산이 없지는않으나 금년 어느 대학에 비하여도 珍貴한 소장품을 다량으로 지니고 있는 부속박물관의 수집도 또 우리대학의 자진 교육시설을 연불수 있게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시설의 확장과 정에서 우리는 더 냉정히 반성하여야 할點도 있다는 것을 항상유의 하여야 하겠다。이와같은 자기반성은 局外者的인 견지에서의 비평이 아니라 보다는 내일의 우리대학 건설을 위한 良藥이 되는까닭이다。

이제 우리가 반성하여야 될 몇가지 사항을 들어 보면、이미 사용중인 시설물이 그 관리상의 소홀한 사례가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물론 예산면의 한계가 있는 본대학의 재정형편으로는 우선 외래객의 출입이 빈번한 교수실 및 기타의 담장도 그 타당성이 인정될수 있으나、이에 병행해서 교수 학생의 교육·연구 환경의 개선과 학생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요소의 제거가 더 급선무일 것이다。장의 室이나 연구실등 교육과 연구의 産室이 실은 수시로 점검이 되어 보수가 되어야 하고、각종 후생시설의 과학적인 관리등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대학에있는 학생을 위한시설들은 학생복지를 기초로하여 운영되여야 하고 그 관리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기말시험이 끝나고 하기방학이 되면、교내의 각종 학생복지 시설들을 주도면밀하게 점검하여 보수와 신설、합리적인 운영에 진력해야 할것을 촉구하는 바다。

韓國戰爭의 背景과 그影響

<1950년8월하순과 9월초순사이 워크라인이 형성되기시작한 전선에서 치열한 참호戰이 벌어졌다.>

<1> 우리는 3년간이라는 民族相爭의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다。장년충이상의 年令層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전쟁이 얼마나 처절했고 비참한 것이었나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폭탄사용량에 있어서 제2차대전의 규모를 넘는 것이었다는 것만보아도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조차도 전쟁이 처절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측할수 있을 것이다。우리 민족의 고통은 전쟁의 규모가 컸기때문에 생긴 物理的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동족상쟁에서 오는 갖가지의 비참함을 경험했던 것이다。

○○○

人間回復의 智慧

「佛敎聖典」을 읽고

敎養學部·讀書 콩쿠르 4月優秀作

洪 永 基

○…讀書의 生活化를 통한 교양교육의 획적확대와 종…○
○…적深化를 위해 교양학부에서는 매월 독서콩쿠르를…○
○…개최하고 있다。敎養學部는 年中1회 실시했던 종…○
○…래의 콩쿠르 요강을 금년부터 변경하여 교양圖書…○
○…도 지정, 월별 독서콩쿠르를 개최하여 연말 최종결…○
○…선을 갖도록 했다。 4월 독서콩쿠르 最優秀作과…○
○…앞으로의 月別 指定敎養 도서는 다음과같다。 …○

아니라 句句節節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의 뇌리에 접근해 올때 깡그리 부서졌고, 읽고, 생각하고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흑백 心醉되어 完讀할수 있었다。

오늘날처럼 기술의 혁신이 급진적이고 문명이 고도로 이룩되어 가는 大衆社會는 우리에게서 마음의 여유를 잃게하고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지극히 官能的인 생활에 자신들을 맡겨버리게 하고 있다。이런때에 가장 急要한 문제는 정신적인 도덕이 동반하여 있어야 가고, 그러므로 인하여 없어가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교양과 內的 充足, 그리고 호덕해진 인생관과 인간성에 대한 깊은 자각이 아닐까。이런 면에서 「佛敎聖典」은 나에게 많은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聖典」의 四篇「敎團의 規範」을 읽어가니 「四十八輕戒」중에이런 말씀이 있었다。이 말은 나의 佛敎에 대한 觀念을 根本的으로 흔들리게 하였다。지금까지 너무나 皮相的인 나는 佛敎가 우리 民族에 끼친 영향은 至大했고 李朝時代를 除外한 대부분의 時代엔 國敎로가지 認定하여 특히民族 文化 사상의 根幹을 이루어 왔으나 近世에 와서는 타종교에 밀리고 쇠퇴하여 간것 같은 敎의 現實生活과 分離되어 오직 자기 자신의 완성만을 위하여 大衆으로부터 혹은 社會로부터 脫皮하여 入山修道해야만 하고 그렇지않는 信徒들이라 해도 現實社會에 果敢하게 뛰어 들어 慈悲의 말씀을 傳하고 이해시키는 理想과 空想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무도 무질없는 「번뇌」들을 줄이고, 줄여 밝은 진리에의 길로 精進할수있는 생활철학과 나 스스로를 完成해 나갈수있는 길이 거기에 제시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마음이복잡하다든지,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화가 난다든지 하면 조용히 이「佛敎聖典」을 펼쳐드는 또하나의 버릇이 생겼다。

그러나 읽을 때마다 섭섭하게 느낀것은 이 귀중한 말씀들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또는 용어를 바꿔 해놓은 책들이 좀더 많이보급됐으면 하는 점이었다。

이외에도 「佛敎聖典」에서 내가 느낀 바는 오직 내 뿐이 아닐 터이고 현재 우리는 「민족思想의 기둥이 되어온 불교사상에 대해 좀더 올바른이해와 편견을 가져야 할것이며 「원효대사」 「원광법사」 같은 훌륭한 祖師들의 사상을 밝혀 이를 비판하고 수정하여 우리의 사상적 지표로 삼아야 할것이다。

또한 어느 특정 종교인을 막론하고 이 「불교경전」은 하나의 宗敎의 經典이기에 앞서 우리마음의 양식이 될, 더욱이 믿어 의심치 않아 누구에게나 一讀을 권하고 싶다。

아울러 「現代 모든 惡의 渦流속에서 「佛敎聖典」은 나의 참되고 진정한 나침판이 되어 나를 지혜롭고 平和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였고 慈愛 즉 大衆을 慈悲로 사랑하기를내몸과같이 하였다나고생각한다。 더우기 「대승경전」 제2편 「유마힐의설법」중에 「모든 중생이 앓으므로 나도앓고 있을 뿐이다。 중생의 병이 없어지면 내 병도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에 들고…중생이 병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는 말씀도 병이 이의 일련의 句節들은 佛敎가 결코 現實 大衆들과 分離된 宗敎가 아니라 더욱 그들 깊숙히과 들어야 하는 宗敎임을 더욱 確固히 깨주었다。 다음은 「慈悲롭고 無私로운 生活 態度確立」이다。 世上이 刻薄해 졌느니 人心이 매정해 졌느니하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느껴 온다。이것은 잘못 인식된 個人主義와 黃金萬能主義에 비롯된 우리 人間愛가 死滅되어가는 서글픈 結果가 아닐 수 없다。따라서 자기의 私學스럼 조그만 利益에 良心이 뒤집혀 事理의 옳고 그름에 눈 먹지기에 앞서 自己利害 판계에 급급하게되고 그런 나머지 우리가 지닌 慈悲로운 人間性은 埋沒되고 邪惡하고 卑屈한 利己主義에 執着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目標를 잃게되고 언제나 不滿과 虛僞에 흔들려 자멸해 가는 이러 자비심은 곧 여래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거든 분수대로 나누어 주라, 한 몸씩줄 두루 가졌이 여기면 이것이 참 복시이며, 나와 남이 둘 아닌 한 몸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것이 우리들 살림살이 아닌가」 등등 많은 말들을 대할 때마다 衆生은 끄사하고 같은 民族, 아니 같은 級友, 심지어 家庭에서까지 좀더 참되고 미덕을 行으로 대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위선과 假飾만 일관했던 나의 생활습관에 커다란 警鐘을 울려주었다。

또 한가지 크게 느낀점은 「생활의 智慧와 自己完成」으로서의 가르침이었다。 오즈음, 특히 젊은 世代들은 무척이나 방황하고 있는것 같다。 물론 그들은 「旣成世代에 대한 反抗」이나 「젊은 혈기의 분출」이나, 혹은 「靑年文化」 등등의 華麗한 말로서 自身들을 은폐하고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보지만, 나 스스로에 비추어볼때, 역시 별다른 이유와 두렷한 目的이없이 서성대고 있을뿐이다。 그러나 「聖典」을 읽어가는 동안 오늘의 나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극복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行動을 罪惡시하고 또한 行하기에 너무나 많은 律法때문에 쉽지 않으리라는 주저함 때문에방설이는 結果가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聖典」에서는 그러한소극적인 것을 바라지 않는 것같다。 물론 「마흔 두번째 계」에서 「게 발지 않는 이에게 포살하지 말라。 포살때에 이양을 위해 보살의 계를 발지 않는 이교도나 그릇된 소견을 가진 자 앞에서 모든 부처님이 말씀한 큰 계를 설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에 그 所敎를 번명하려 들지는 모르지만 慈悲心은 廣世 즉 모든 衆生을 苦에서 건져 내는 게 아닐까。 그러기에 부처님은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平和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였고 慈愛 즉 大衆을 慈悲로 사랑하기를내몸과같이 하였다나고 또한 行하기에 거기에서 벗어나 無私롭고 公明한 생활태도를 확립하고, 진리를 실천하기만큼 어려운 일도 드물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執着에서 해방될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善을 행할수있고, 또한 우리의 생활속에서 「慈悲」가 꽃피워지지 않을까。 그러기에 부처님은 무엇보다도 이에대하여 가장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또한 몸소 言行으로서 실천하시어 모든 중생과 信徒들에게 경계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모든 보살과 여래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수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하여라。 자비심은 진실해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을 진실에서 일어난다。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모든 인기에 거기에서 벗어나 無私롭고 公明한 생활태도를 확립하고, 진리를 실천하기만큼 어려운 일도 드물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執着에서 해방될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善을 행할수있고, 또한 우리의 생활속에서 「慈悲」가 꽃피워지지 않을까。 그러기에 부처님은 무엇보다도 이에대하여 가장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또한 몸소 言行으로서 실천하시어 모든 중생과 信徒들에게 경계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모든 보살과 여래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수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하여라。 자비심은 진실해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에서 일어난다。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모든 인기에 거기에서 벗어나 無私롭고 公明한 생활태도를 확립하고, 진리를 실천하기만큼 어려운 일도 드물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執着에서 해방될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善을 행할수있고, 또한 우리의 생활속에서 「慈悲」가 꽃피워지지 않을까。 그러기에 부처님은 무엇보다도 이에대하여 가장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또한 몸소 言行으로서 실천하시어 모든 중생과 信徒들에게 경계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불교경전』이 오늘을올바르게살아가야할 우리에게반드시 읽혀져야만 하는 양서(良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교」에 대한나의 歪曲된 편견과, 또한 읽기에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나의 선입관념 때문에 선뜻 펴 들지 못했던 것을, 4월 「월례법회」때 「혜명 무진장스님」의 「現代人의 佛敎」라는 연제의 말씀을 무척 감명깊게 듣고서 즉시 그러나 지극히 미심쩍게 책장을 펼쳤던 하지만이러한 나의 誤判은 「佛敎聖典」의 珠玉같은 진리들을 일상적이고평범한 쉬운 말로서 쓰여졌을뿐만 아니라 句句節節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나의 뇌리에 접근해 올때 깡그리 부서졌고, 읽고, 생각하고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흑백 心醉되어 完讀할수 있었다。

오늘날처럼 기술의 혁신이 급진적이고 문명이 고도로 이룩되어 가는 大衆社會는 우리에게서 마음의 여유를 잃게하고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는, 지극히 官能的인 생활에 자신들을 맡겨버리게 하고 있다。이런때에 가장 急要한 문제는 정신적인 도덕이 동반하여 있어야 가고, 그러므로 인하여 없어가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교양과 內的 充足, 그리고 호덕해진 인생관과 인간성에 대한 깊은 자각이 아닐까。이런 면에서 「佛敎聖典」은 나에게 많은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現代惡超克하는 人間의 나침판

悔悟·決心·喜悅·自我의 認識등 엇갈려

방황에서 眞理에의 精進으로

구절구절이 두렷한 하나하나의 제시가 되어 내마음에 파고 들때에, 깊고 뜨거운 반성의 悔悟와 아픔, 自我의 어리석음에대한 認識, 혹은 새로운 生活을 다짐하는 결심과 그에 따르는 喜悅로 가득찼고 그때의 내 가슴은 뿌듯해짐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에 비추어 비관하고, 그리하여완전한 나의 생활의 지혜로 만들어야 된다는 가느다란 主觀이 앞설 때는 나의 눈빛이 좀더 寧靜하는 의부감이 동시에 느껴졌고 그때 더욱 이 「聖典」을 통하여 玉과 같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은 내가 발견되는 것이다。

「衆生을 항상 敎化하라…만약 衆生을 敎化할 생각을 내지 않으면 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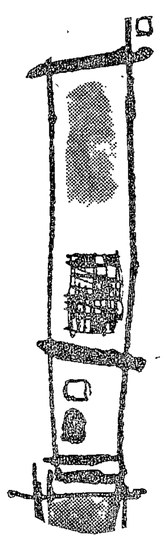
려 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行動을 罪惡시하고 또한 行하기에 너무나 많은 律法때문에 쉽지 않으리라는 주저함 때문에방설이는 結果가아닌가 생각했다。

그러나 「聖典」에서는 그러한소극적인 것을 바라지 않는 것같다。 물론 「마흔 두번째 계」에서 「게 발지 않는 이에게 포살하지 말라。 포살때에 이양을 위해 보살의 계를 발지 않는 이교도나 그릇된 소견을 가진 자 앞에서 모든 부처님이 말씀한 큰 계를 설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에 그 所敎를 번명하려 들지는 모르지만 慈悲心은 廣世 즉 모든 衆生을 苦에서 건져 내는 게 아닐까。 그러기에 부처님은만나는 사람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平和롭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였고 慈愛 즉 大衆을 慈悲로 사랑하기를내몸과같이 하였다나고 또한 行하기에 거기에서 벗어나 無私롭고 公明한 생활태도를 확립하고, 진리를 실천하기만큼 어려운 일도 드물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執着에서 해방될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善을 행할수있고, 또한 우리의 생활속에서 「慈悲」가 꽃피워지지 않을까。 그러기에 부처님은 무엇보다도 이에대하여 가장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으며 또한 몸소 言行으로서 실천하시어 모든 중생과 信徒들에게 경계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모든 보살과 여래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보살이 자비심을 기르면 한량없는 선행을 할수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이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하여라。 자비심은 진실해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에서 일어난다。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요,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모든 인

노을이 타는 이 저녁에

尹 順 根



이름 조차 잃어버린 도시인을 업고
서녘으로 날아가는 한 무리 새들,
하늘 비껴 붉은 우산을 쓴 산마루로는
세모시라도 헹구어 낼 그대 눈빛에서
물장구 치던 간 밤의 고운 꿈 가
득 어리는데,
가로수 만큼 커버린 사람들은
예전에 다니던 길 위에서 헤메인다.

사뭇 머무르려는 홀로인 마음은
두 손 모아 인정을 감싸쥐고
자갈 밟을 차고 나가 뒤 돌아보면
여전히 타오르는 노을속에 내가 있다.

별들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풀 숲에
황혼의 바다를 출렁이게 하는
가—르 바람에 잎새 흩어지는 소리,
꽃잎을 따서 띄우는 童心으로
번져오는 눈물에
산너머 이웃도 함께 타는 이 저녁으로
꽃잎을 띄운다.

<文理大·英文科>

前衛藝術의 理解

徐 元 澈

○……現代 前衛藝術은 「다……○
○……다」에 直接的인 기……○
○……원을 가진다. 「……○
○……다다」는 第……○
○……次世界大戰중……○
○……戰爭을 불……○
○……가피케한……○
○……産資業本……○
○……主義 世……○
○……界觀과進……○
○……步의 迷……○
○……妄에 對한……○
○……藝術像의 友……○
○……逆運動이었으며……○
○……그것은 一切의 既……○
○……存美學에對한 철저……○
○……한 파괴로 表現되었다. ……○

傳統藝術에 대한 再發見

「다다」의 직접적인 계승이라 할 초현실주의의 역시 빈곤과 부유의 양계 팽화의 福音을 외치면서 여전히 침략전쟁을 전개하는 人間의 각종 충동을 억압함으로써 僞善으로 내노는 「미이드 부르조아」의 허위와 道德的인 부패에 대한 거부반응이었다.

抽象主義나 「엥포트멜」 繪畫만 하더라도 戰後의 實存的 상황을 확대하려는 創造의 몸부림이었다.

이처럼 前衛藝術은 社會的 긴장이나 위기의식에서 비롯할 때도 있고 또 지 藝術內的일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그것은 이미 硬化된 藝術觀의 常套型을 파하고 인간의 「새로운 存在秩序와 感性의 地平을 열어보이려는데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本質的인의미에서부터) 革命的이다. 이 혁명성은 反對側에서보면 기존질서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퇴폐적으로보이기까지한다. 지금까지의 前衛藝術이 긍정적인 面을 社會革命의 同盟者로 받아들였다가 촉발한 다음 오히려 「부르조아 카데미즘」의 상투형으로 흘러간 적이 있다. 獨創的인 예술은 우리의 感性을 확대케 하므로서 人生 그 자체를 更新시키려는데 비해, 비약한 예술은 감정을 타락시키며 민중선동가가 이용하는 인입을 꾀려할때 참된意味의 前衛藝術이 인간이나 사회에 이바지 하는 바가 어떠한지는 명백하다.

藝術이 특정한 인간이나 目的을 위해 봉사하지 않아도 좋은 社會가 출현했을때 그것은 이미 前衛的인 성격을 잉태했고 또 그러한 社會的 풍토에서만 전위예술은 生存할 수있고 代價를 막져 볼수있다. 韓國에서前衛藝術이 하나의 운동으로 등장한것은 1950년대말 抽象主義및 앵포멜 繪畫가 그始初다. 그것이 비록 西歐戰後樣式의 수입이란 약점에도 불구하고 市民權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래의 아카데미즘을 타파하고표현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후의일련의 전위예술은 사실상 空轉한 감이있다. 그이유는 우리의 現實性에 밀착하지 못함으로서 反逆의 목표나 抵抗力을 잃고있기 때문이다. 최근 一部에서는 전통예술의 活潑한 접촉을 시도하고있는데 이는 전통거부라는 전위 본래의 論理에 잃으어 버린 근본적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近代藝術·西歐藝術의 세례를 받는동안 전통으로부터 日時的으로 단절되었던 사정에 기인한다. 傳統藝術에 대한再發見이다. 그와의 접촉을 현재로서는 실험적인 性格을 띠었는데 그러한경향을 우리예술의 脫西歐化를 위해서나 전통의중정적 계승을 위해서나感性의 확대의 견인을 위해서도 옹분의 당위성을 지닌다. 비단 이뿐만아니라 오늘의 우리예술에創造의 活力을 불어넣기위해서는 기왕의 前衛藝術에대한 반성과함께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실현이 요망된다.

<佛敎大·美術科>

存在秩序와 感性의 세계

危機意識에서의 藝術上반역 운동

「다다」의 직접적인 계승이라 할 초현실주의의 역시 빈곤과 부유의 양계 팽화의 福音을 외치면서 여전히 침략전쟁을 전개하는 人間의 각종 충동을 억압함으로써 僞善으로 내노는 「미이드 부르조아」의 허위와 道德的인 부패에 대한 거부반응이었다.

抽象主義나 「엥포트멜」 繪畫만 하더라도 戰後의 實存的 상황을 확대하려는 創造의 몸부림이었다.

이처럼 前衛藝術은 社會的 긴장이나 위기의식에서 비롯할때도 있고 또 지 藝術內的일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그것은 이미 硬化된 藝術觀의 常套型을 파하고 인간의 「새로운 存在秩序와 感性의 地平을 열어보이려는데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것은 (本質的인의미에서부터) 革命的이다. 이 혁명성은 反對側에서보면 기존질서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퇴폐적으로보이기까지한다. 지금까지의 前衛藝術이 긍정적인 面을 社會革命의 同盟者로 받아들였다가 촉발한 다음 오히려 「부르조아 카데미즘」의 상투형으로 흘러간 적이 있다. 獨創的인 예술은 우리의 感性을 확대케 하므로서 人生 그 자체를 更新시키려는데 비해, 비약한 예술은 감정을 타락시키며 민중선동가가 이용하는 인입을 꾀려할때 참된意味의 前衛藝術이 인간이나 사회에 이바지 하는 바가 어떠한지는 명백하다.

藝術이 특정한 인간이나 目的을 위해 봉사하지 않아도 좋은 社會가 출현했을때 그것은 이미 前衛的인 성격을 잉태했고 또 그러한 社會的 풍토에서만 전위예술은 生存할 수있고 代價를 막져 볼수있다. 韓國에서前衛藝術이 하나의 운동으로 등장한것은 1950년대말 抽象主義및 앵포멜 繪畫가 그始初다. 그것이 비록 西歐戰後樣式의 수입이란 약점에도 불구하고 市民權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래의 아카데미즘을 타파하고표현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후의일련의 전위예술은 사실상 空轉한 감이있다. 그이유는 우리의 現實性에 밀착하지 못함으로서 反逆의 목표나 抵抗力을 잃고있기 때문이다. 최근 一部에서는 전통예술의 活潑한 접촉을 시도하고있는데 이는 전통거부라는 전위 본래의 論理에 잃으어 버린 근본적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近代藝術·西歐藝術의 세례를 받는동안 전통으로부터 日時的으로 단절되었던 사정에 기인한다. 傳統藝術에 대한再發見이다. 그와의 접촉을 현재로서는 실험적인 性格을 띠었는데 그러한경향을 우리예술의 脫西歐化를 위해서나 전통의중정적 계승을 위해서나感性의 확대의 견인을 위해서도 옹분의 당위성을 지닌다. 비단 이뿐만아니라 오늘의 우리예술에創造의 活力을 불어넣기위해서는 기왕의 前衛藝術에대한 반성과함께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실현이 요망된다.

<佛敎大·美術科>

火曜칼럼

職業觀

朴 大 錫

모든 가치있는 일이 그 렇듯이 우리가 職業을 갖기위해 직업을 찾는 일도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을 가지게 될 때 그것으로해서 행복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된다.

일한다는 것이 인간屬性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직업을 가진다는 사실은 사람이 지닌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인 것 같다. 「일이란 가장유쾌하고 보수가 있으며 값싸게 시간을 소비할 수있는 것」이라고 「칼·힐티」는 말했다.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란 우리가 지닌情熱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이다. 情熱이 없는 곳엔가치있는 人生의 사업도 없을 것이다. 情熱은 실로 인생의 힘이기 때문이다.

오늘을 졸업을앞둔 학생들에게는 취업에대한 걱정들이 태산같다. 간간히 모집광고가 나붙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어떤 직업을택할 것인가를 고심한다. 가많고, 받아 졸업한 직장을 시시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인 듯하다.

일반적으로 인기있는 직장은 初俸이 많은곳이다. 그러나 돈에 얽매이는 時流을 탓할 수는 없다. 분명히 돈도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한가지 요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장은 봉급 많은직장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직업은 우선 糊口之策로서 필요하다. 그래서 生業이라 부른다. 밥벌이는 직업이 필요한 동기가 되긴 하지만, 너무나 가난했던우리의 경험은 맹목적으로이것, 즉 돈에 의한 가치계산으로서의 직업을 생각케 하는 것 같다.

生計 다음으로 직업에서 얻을수 있는것은職分이다. 남에게 奉仕하는데서 기쁨을 얻고, 奉仕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信念을 펴나갈 수 있다는 名分때문에 직업을 갖게도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天職으로서의 職業觀인것같다. 직업은 生計解決 부터 30일까지 6일간장 충동 국립극장에서 공연된다.

매일 오후 7시에 공연되는 「남한산성」은 丙子胡亂당시의 남한산성을 배경으로 그린작품이다.

출연에는 金貴國·張民虎·金聖鎭·朴景三외에 1백20여명이다. 여기에는 분피同門 鄭祥鎭·李相秀·金周鎭등이 출연한다.

◇文化短信

「南漢山城」公演

국립극장에서

國立劇團 제69회 공연인 金義卿작 「남한산성」이 李眞淳(本校 演映科 敎授) 연출로 오는 25일부터 국립극장에서 공연된다.

劇團「架橋」는 도봉산 行버스(15·21번) 종점에 가까운 도봉 산학계곡에 「천막극장」을 개설, 매주 일요일 (오는 23일부터) 오후5시와 7시 두차례로 공연을 한다.

피터토리는 「열쇠」(尹大鎭작, 이승규연출), 「끝없는 아리아」(김래이作 이승규연출) 「절부지들」(돌·존스作 이승규연출)이다. 출연은 「架橋」의 전단원.

가벼운 식사나 커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천막극장」개설

극단「架橋」日曜日

退任記者席

이제 出港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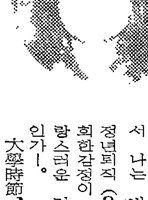
朴 男 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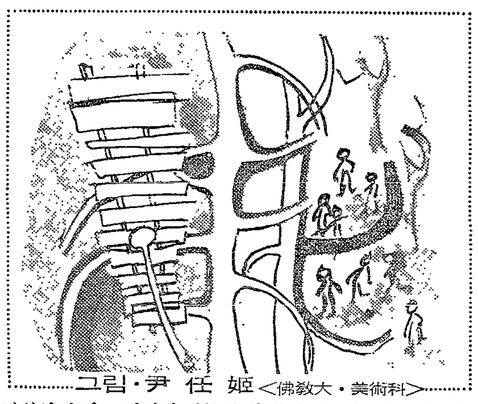
<前취재부장>

「기피는 항기처럼」

尹 太 京

<前편집부장>





그림·尹 任 姬 <佛敎大·美術科>

메아리

▼시간에 있어서 만은 과잉 써비스시대의 副産物인 「팁」조차 없애 버리고 그리 흔한듯 하면서, 한푼의에 누리도 허용하지 않을은 오직 永遠으로만 수렴하는 時間의 속성뿐이다.

선택받은 知性人인 학생에게는 「또, 반년을 살았구나」라는 표현보다는 「또, 한 학기가 가는구나」가 더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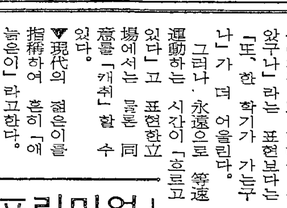
그러나 永遠으로 等速運動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표현함은 현장에서는 물론 同意를 「캐취」할 수 있다.

▼現代의 젊은이들 指稱하여 흔히 「애늙은이」라고한다. 하지만 大學人전체가 이런 불평에스런 오명을 씌어져야할 이유는없다. 다만, 時代를直視, 遠大한 理想을 품을 早老한 젊은이들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타성에서脫皮, 제나름의 改革的인位置를 구축했을 때 그들에게는 티없는 善에 바탕을 둔 深淵의 悔改가 엄철 것이다. 그역시 시간의 속성에 기인한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는 우리의 生命이 하루 하루 새롭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長壽에 따라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지고 神의 섭리에 대한 미궁도 그만큼 지속되고 神과 人間에 대한 觀照의 愛讀을 잡히 바랄뿐이다.

<高>

時間의「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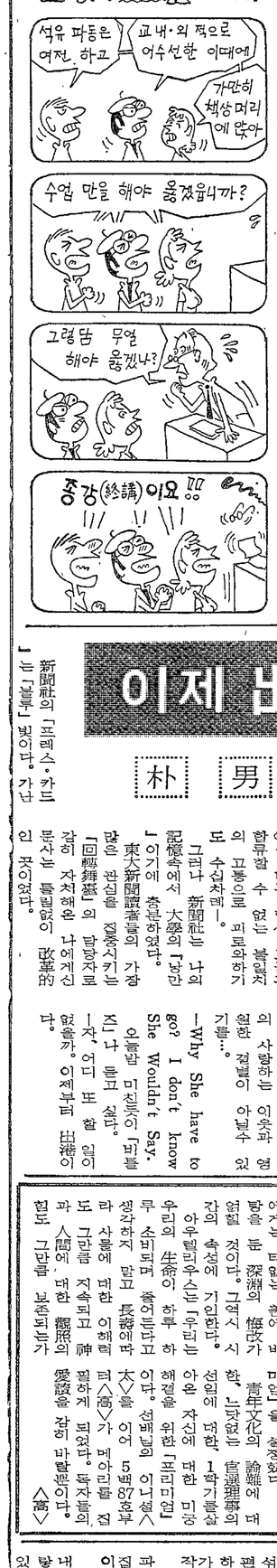


李學人을 劇場까지유인해 갔다. 대학의 필수휴대품으로 일학 각광을받는 기식작한 「日刊스포츠」는 젊은이들의 말초신경을 대신하고 있다. 이른바青年文化의 「선세이션」이었다.

24일부터 74학년도 제1학기말 시험이 시작된다. 7월6일이면 방학이 시작된다. 이제 자신이반성을 이룰 塔을 쳐다보는 학기말이다. 선배님의 이시간을 우리에게 「프리미엄」을 설정했다.

青年文化의 論難에 대한, 늘닷없는 官選理事의 선임에 대한, 1학기를삼아온 자신에 대한 미궁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선배님의 이시간을 「大」을 이어 5백87호부터 〈高〉가 메아리를 접하게 되었다. 독자들의 필하게 되었다. 독자들의 愛讀을 잡히 바랄뿐이다.

<高>



通禁

朴 男 濬

<3>

◇短篇小說◇

『그래도 지금은 견딜 수 있다. 사실 사람가 없는 지난 여름이 내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아주 영영 이곳을 잊어버렸나 하였으니까…. 자, 해해 가기울였다. 그만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자.』

엄마는 그날 저녁 나에게 칠이 벗겨진 쉴로폰 한 대를 주었다. 그것은 쉴로폰이 오래 전에도 이따금씩 엄마의 방 깊숙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낡고 조그마한 페품이었다.

둔탁한 쉴로폰을 펑기면서 나는 한낮의 폰목을 지켜 보았다. 비는 혹 연일을 계속해서 내린다기 장밭의 소년들이 머리칼을 날리면서 폰목을 질펑하고 있었다. 뜨락의 숲 위로 속속한 비가 내렸다. 오늘도 우체부는 보이지 않는다. 아침마다 우편함을 확인해보던 노파의 책임감도 이제는 전혀 노둔해졌다.

아이들은 떨어지는 빗물을 경계하면서 훌륭하게 놀이에 열중해 있었다. 절편이는 방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작은 발목을 나는 창가에서 볼수 있었다.

유리구슬이 굴러 다녔다. 아이들은 어딱딱색 대문이 닫힌 엄마의 집을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제꼈다.

나는 커텐 속에 몸을 숨기고 아이들의 구슬놀깔을 짐작하려 애를썼다. 아이들은 추적이며 내리는 오후의 빗소리를 개의치 않고 활기차게 뛰어다녔다.

폰목길은 길고 멀었다. 햇빛나는 날에도 그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늘 덮인 곳이다. 짙은 가을녘을 가끔이부는 해를 그림자가 스친 것 같았다. 검고 커다란 사람이었다.

흠뻑 비에 젖은 사나이는 우체부였다. 사나이는 절름 절름 빗줄기를 가르며 아이들이 없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아이들이 왁자하게 사나이를에 워쌌다. 노파가 재빨리 이층 내 방을 올려다 봤다.

나는 그대로 서서 있었다. 문게 달힌 집의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나는 불안하였다.

〈너에게 나의 위치를 변명하고 싶지는 않다. 누추한 감정을 벗기는게 아니야, 묵살해 버릴 수도 있어. 내게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화실에서 헤어지면서 그는 나에게슬픈 격려를 선언하였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의 눈초리가 나는 아직도 불안하였다.

빗방울이 방안으로 떨어져서흘렀다. 나는 창에 기대어 서서 꾸뚜히 폰목을 노려 보았다. 노파가 아이들 속에 섞여 있었다. 제 집으로 배달되는 우편을 찾아내기 위하여 아이들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사나이가 그림 속의 남자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일제히 와아 흩어졌다. 노파가 비를 맞으며 집쪽으로걸어왔다. 집밖으로 우거져간 갈나무의 검은잎이 검고 있는 노파를 감춰 버렸다.

나는 폰목 끝에 홀로 서 있는 사내아이를 볼 수 있었다. 아이는 커다랗고 새하얀 사각봉투를 가슴에 안고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어서 아이는 함없이 창백하게 손으로 붙아 보였다.

빈 시들어 자빠진 나의 그림자를 묵격하였다. 작업실에 깊이 묻혀서 작품 씨름할 그의 침묵 앞에 나는 이미 어떠한 용기도 얻을 수 없다.

『그 꼬마가 유일한 아이였지. 아무도 편지를 받은 아이는 없었던 많아. 그게 누군지 알아? 지난겨울 제 어머니가 앓다가 죽은 전년편 폰목집의 손자아라구. 저의 아빠가 월북해 북녀으로 들어갔다던니 어린것이 못잊혀졌던 모양이야—』

실내로 돌아온 노파는 홍전히 비에 젖어서 소년을 동정하고 있었다. 검은보에 덮여서 장지로 향하가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 눈물을 글썽이던 깡마른 아이—. 화교(華僑) 소년을 나는 기억해냈다. 소년에게서는 늘 앙큐비꽃 냄새가 났다.

〈분묵에서 아버지가 편지를 했다.〉

폰목 기억속에 서있던 작은 소년이 발늦도록 남아있었다.

엄마는 갑색 부츠를 침하고있었다. 나는 이런한 엄마의 변화에는 무관심하게 여느때와 다름없이 한 평기의 식사를 어김없이 끝내였다. 엄마가 지시한 세탁물들을 노파는 정결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다. 방금 배달된 조간 신문은 종일을 청결하라는 일기 예보를 2단 「박스」 기사로 실고있었다.

『분묵 생각해서 너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어볼때가 있지. 그것이 단순히 어제 오늘에 비롯된 감정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너게는 익숙해진 허탈감이야. 그러나 이번만큼은 진실로 정확한 나는바 엄마는 한 꿈기의 식사를 어김없이 끝내였다. 엄마가 지시한 세탁물들을 노파는 정결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다. 방금 배달된 조간 신문은 종일을 청결하라는 일기 예보를 2단 「박스」 기사로 실고있었다.

『분묵 생각해서 너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어볼때가 있지. 그것이 단순히 어제 오늘에 비롯된 감정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너게는 익숙해진 허탈감이야. 그러나 이번만큼은 진실로 정확한 나는바 엄마는 한 꿈기의 식사를 어김없이 끝내였다. 엄마가 지시한 세탁물들을 노파는 정결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다. 방금 배달된 조간 신문은 종일을 청결하라는 일기 예보를 2단 「박스」 기사로 실고있었다.

『분묵 생각해서 너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어볼때가 있지. 그것이 단순히 어제 오늘에 비롯된 감정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너게는 익숙해진 허탈감이야. 그러나 이번만큼은 진실로 정확한 나는바 엄마는 한 꿈기의 식사를 어김없이 끝내였다. 엄마가 지시한 세탁물들을 노파는 정결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다. 방금 배달된 조간 신문은 종일을 청결하라는 일기 예보를 2단 「박스」 기사로 실고있었다.

『분묵 생각해서 너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어볼때가 있지. 그것이 단순히 어제 오늘에 비롯된 감정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너게는 익숙해진 허탈감이야. 그러나 이번만큼은 진실로 정확한 나는바 엄마는 한 꿈기의 식사를 어김없이 끝내였다. 엄마가 지시한 세탁물들을 노파는 정결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다. 방금 배달된 조간 신문은 종일을 청결하라는 일기 예보를 2단 「박스」 기사로 실고있었다.

『분묵 생각해서 너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어볼때가 있지. 그것이 단순히 어제 오늘에 비롯된 감정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너게는 익숙해진 허탈감이야. 그러나 이번만큼은 진실로 정확한 나는바 엄마는 한 꿈기의 식사를 어김없이 끝내였다. 엄마가 지시한 세탁물들을 노파는 정결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다. 방금 배달된 조간 신문은 종일을 청결하라는 일기 예보를 2단 「박스」 기사로 실고있었다.

『분묵 생각해서 너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어볼때가 있지. 그것이 단순히 어제 오늘에 비롯된 감정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너게는 익숙해진 허탈감이야. 그러나 이번만큼은 진실로 정확한 나는바 엄마는 한 꿈기의 식사를 어김없이 끝내였다. 엄마가 지시한 세탁물들을 노파는 정결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다. 방금 배달된 조간 신문은 종일을 청결하라는 일기 예보를 2단 「박스」 기사로 실고있었다.

『분묵 생각해서 너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어볼때가 있지. 그것이 단순히 어제 오늘에 비롯된 감정은 아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너게는 익숙해진 허탈감이야. 그러나 이번만큼은 진실로 정확한 나는바 엄마는 한 꿈기의 식사를 어김없이 끝내였다. 엄마가 지시한 세탁물들을 노파는 정결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다. 방금 배달된 조간 신문은 종일을 청결하라는 일기 예보를 2단 「박스」 기사로 실고있었다.

마음대로 용량을 선택할 수 있읍니다.

OB는 容量이 多樣하여 졌읍니다.
OB는 大병(640ml)과 小병(343ml)에 이어 中병을 생산, 판매하게 되었읍니다.
中병은 500ml의 새로운 容量입니다.
容量이 多樣하여진 OB는 이제 마음대로 容量을 선택할 수 있읍니다.

OB 中병은 포장이 새로워졌읍니다.
中병은 병마개와 병의 모양이 새로워졌으며, 레이블(Label)도 새로워졌읍니다.

마음에 새겨진 風味 OB 맥주
맥주원료 100% 자급자족으로 자원전쟁시대를 극복하려는 OB.
OB는 소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꾸준히 새로운 제품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모든 노력은 OB의 전통과 품질로 이어지고 있읍니다.

마음에 새겨진 風味
OB 맥주